

유엔 북 인권 전문가, 동북아시아 공식 방문

제네바 (2017년 12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하 “특별보고관”)은 동북아시아 내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오는 12월 11일에서 16일 사이 대한민국과 일본을 방문한다.

“금번 방문 기간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우려 사안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토마스 오헤아 퀴타나 특별보고관은 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4년 특별보고관 위임 권한이 창설된 이래 국가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근래 여성, 아동 및 장애인 인권 관련 기타 유엔 메커니즘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메커니즘 참여를 기회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변화하도록 독려하길 강력하게 권고했다. 특별보고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오랫동안 인권 관련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기에, 근래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국제공동체와 대화를 이어가도록 적극 독려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점차적으로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가능성이 있는 주변국 간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금년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지난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장하길 수소 폭탄을 실험했다. 이후 동북아시아 내 긴장은 고조되었고,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여 미사일 발사 및 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상 국제 제재 조치를 강화했다.

특별보고관은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이어 15일부터 16일까지 일본에 방문할 예정이다.

12월 14일 대한민국 현지 시각 오후 1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며, 언론인만 참석할 수 있다.

특별보고관은 2018년 3월 인권이사회에 다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끝

토마스 오헤아 퀴타나(아르헨티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임명을 받았다. 인권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변호사로 미주인권위원회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아동 납치 문제를 다룬 비정부기구 마요 광장의 어머니들(Abuelas de Plaza de Mayo) 대표로도 활동했다. 볼리비아 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인권 프로그램을 총괄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얀마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직을 역임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제도](#)로, 특별절차는 유엔 인권 제도 하에서 가장 많은 수의 독립전문가가 참여한다. 특별절차는 특정국가 인권 또는 전세계에 적용하는 특정 인권

주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특별절차 전문가는 유엔 직원 신분이 아니고 무보수로 자발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여타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유엔 인권 국가별 웹페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웹페이지

추가 정보 및 언론사 문의는 아래를 참조해주시요.

서울: 영어 문의는 Tarek Cheniti (+82 10 5927 8724/ tcheniti@ohchr.org), 한국어 문의는 안윤교 (+82 10 6607 3595 / yahn@ohchr.org)로 문의주시요.

제네바 및 도쿄: 영어 및 일본어 문의는 Olga Nakajo (onakajo@ohchr.org, 방문 기간 중: +41 79 444 4332 방문 전후: +41 22 928 9348)로 문의주시요.

기타 유엔 독립전문가 관련 언론사 문의는 아래 언론 부서(Media Unit) 담당자로 문의해주시요.

Bryan Wilson (+ 41 22 917 9826 / mediaconsultant2@ohchr.org)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나아지길 바라시나요? 다른 이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스탠드업(STAND UP)” 목소리를 내주세요. 스탠드업(#Standup4humanrights) 웹사이트(<http://www.standup4humanrights.org>)에 방문해주세요.